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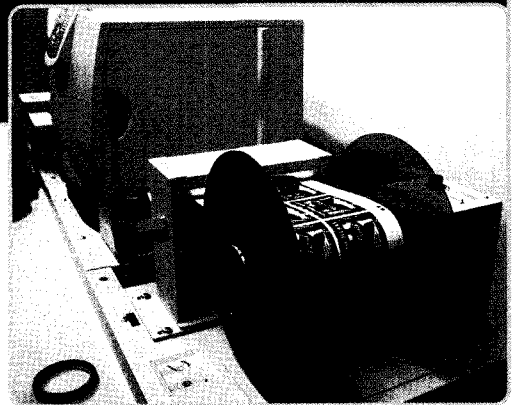
디지털컬러라벨인쇄기 CX1200

디지털시대에 맞는 고객 맞춤형 라벨인쇄 실현



마이크로큐닉스(대표 이병열)는 지난 3월 16일 서울 가산동 본사 회의실에서 풀 컬러 디지털 라벨인쇄기 CX1200 출시 기념 기자회견 및 장비 시연회를 개최했다. 마이크로큐닉스가 공급하게 되는 CX1200은 세계적 라벨인쇄기 전문 업체인 PRIMERA와 파트너십을 맺고 도입하게 된 것이며 풀 컬러 디지털 라벨 인쇄기여서 2400dpi의 고해상도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분당 5미터의 빠른 인쇄 속도를 갖고 있으며 윈도우 기반의 편리한 사용자 안내로 쉽게 작업이 가능한 최신 장비이다.

마이크로큐닉스는 CX1200은 지난 2009년 라벨엑스포에 선보인 후 국내에 처음 출시되며 추가로 출시 예정인 디지털 후가공기 FX1200과 함께 사용한다면 매우 높은 효율성을 보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CX1200과 FX1200의 공급사인 프리메라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풀칼라 디지털 라벨 인쇄기 및 라벨 후가공 장비 전문 기업으로 뛰어난 품질과 속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기업이다. 다음은 CX1200과 FX1200의 특징점이다.



폭 넓게 라벨인쇄 지원하는 CX1200

CX1200의 주 고객층은 라벨을 소량으로 제작하는 인쇄사 및 자체적인 물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회사측은 2,000개 이상의 수요 기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X1200은 처음 라벨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윈도우 기반의 PT프린트, RIP소프트웨어, CMYK토너카트리리지, 381m메트 피니시 라벨 소재, 언와인드 및 리와인드 스테이션, 인쇄 엔진과 자동 장력 조절 스테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이 가능한 소재는 종이, 폴리에스터(백색이나 투명)이며 레이저 사용이 불가능한 소재는 퓨저에서 뜨거운 열이 생성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팬톤의 인가된 컬러를 지원하는 CX1200은 약 46%의 팬톤 별색 컬러북을 재현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 CMYK로 35~50%의 팬톤 별색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수한 재현력이다. CX1200이 사용하는 잉크는 방수 뿐만 아니라 라미네이팅이 없이 UV에 대한 내구성까지 갖고 있다. 후가공에 라미네이션을 추가할 경우에는 UV나 마찰력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다. 프리메라 토너는 UV저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른 레이저 토너 브랜드보다 훨씬 긴 수명을 자랑한다.

CX1200과 연동, 뛰어난 효율성 발휘하는 FX1200

FX1200은 터치스크린 패널을 통해 압력을 조절한다. 여러 종류의 소재에 대한 압력의 값이 저장되어 있으며 기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터치스크린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저장된 값을 통해 나이프의 압력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칼날을 사용할 때도 각각의 나이프 캐리어를 통해 롤지를 가로 지르는 나이프의 밸런스를 입력해 놓은 값을 갖고 있으며 개별적인 세팅은 사용자가 할 수 있다. 나이프는 메트지를 기준으로 12,200m의 선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이 수치는 사용소재 및 커팅 압력에 따라 다소 변화된다.

작업 중에 서로 다른 형태나 사이즈의 라벨을 원할 경우, CX1200을 사용한다면 자동으로 HPGL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파일은 자동으로 라벨의 형태와 크기에 맞게 커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파일이며 사용자는 USB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FX1200에 전송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터치스크린을 통해 임혀진 파일을 확인하면 된다. 별도의 전문 오퍼레이터가 필요 없도록 설계된 CX1200과 같이 사용되는 FX1200의 사용도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쉬운 작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 왼쪽면, 시연을 하고 있는 CX1200
◀ 작업된 라벨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큐닉스의 송정수 이사

